

-이번 정류소는, 강남역, 강남역, 사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강남역 정류소입니다,

하차벨과, 버스 출입문의 피스톤 유압장치 소리가 들렸다.

나는 습기로 비벼진 머리카락을 창문에서 떼고, 잠이 덜 깬 눈을 꿈벅이며 마스크를 고쳐맸다. 갓 내려앉은 짙은 매연 양금 냄새가 끼쳐왔다.

-하차벨이 단조롭고 가느다란 비명을 되질렀다. 정차한 차량은 공중부양하듯 휘청였다.

깜박 졸다가 무슨 꿈을 꾸었던 거 같은데, 간절히 바라던 무언가가 이루어졌다는 느낌의 꿈이었는데.....

-실눈처럼 열린 창틈으로 매캐한 한기가 썰리들었다.

.....강남역 정류소입니다.

다시 눈을 떴다.

창밖에는 형광 다이오드 수천억개를 폭죽처럼 터뜨리는 배배 꼬인 네온 혈관, LED 광고, 각종 조명들, 기약없는 신축경쟁과 임대경쟁과 입시경쟁, 취업경쟁, 결혼경쟁, 투자경쟁, 건설증축의 무한잇단 도돌이표..... -바깥 공기가 밀려들어왔다. 어지러웠다.

울여름 폭염으로 늘어붙었던 아스팔트가 바퀴 자국을 타고 작은 산등성이를 이루며 버스의 폭만큼 도로 양옆으로 밀려 올라가 있었다. 아스팔트를 점토처럼 마저 밀어내고 지표를 투시해 보는 상상을 했다. 영등포 동쪽의 남서울 건너 이름 없던 동네, 배농사 짓고 누에 치던 허허벌판 변두리가 어느덧 ‘강남’ 이 되어버렸다고, 50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는 배추와 배가 잘 자라는 비옥한 과수밭 땅이었다고, URL은커녕 검색경로조차 잊은 어느 사이트에서 읽은 기억이 났다.

도로가 보글보글 녹아 흠이 되고 배추가 한 포기 두 포기씩 피어오르는 상상을 했다. 배추흰나비들이 그리로 날아드는 모습을 상상했다. 갈 곳 잃은 작은 배추흰나비들의 비행궤적이 기관총탄처럼 흉부를 관통하는 감각이 쏘고 갔다. 텅, 텅.

예지를 만나기로 한 역삼역 방향으로 이동할수록, 목적 모를 고층건물들이 불가항력처럼 솟아올랐다. 갓 뿜은 브로마이드처럼 선명하게 번들거리는 테헤란로의 거울 새벽, 그렇잖아도 가파른 언덕의 고갯길에서 하늘을 굽을 기개로 웅기한 철근과 유리의 절벽들은, 이 시간에도 벌써부터 거대한 QR코드처럼 싸늘한 통유리창을 난해한 패턴들로 밝히고 있다. 썩-하며 시시각각 불어나는 자동차 바퀴소리와 쓱쓱쓱 고층건물 사이를 메아리치는 청소노동자들의 빗자루질 소리가 기괴한 망망대해의 파도소리처럼 섞여 들렸다.

곧 언덕을 넘어오는 오토바이 한 대 소리가 유독 우렁차게 퍼졌다. 어찌나 요란스럽고 선명한 악셀 밟는 소리가 나는지 만화책처럼 효과음 글씨체가 눈앞에 적혀내리는 듯했다. 오토바이는 내 앞으로 와서 악셀턴으로 곡선을 그리고서, 탈탈탈 소리를 내다가 멈췄다.

예지는 오토바이의 시동을 끄고, 헬멧을 벗고, 젖은 강아지처럼 머리를 흔들어 털었다.

“어으 추워. 이야, 벌써 겨울이다.”

나는 까만 기타케이스를 메지 않은 예지가, 더군다나 네모난 배달업체 박스를 오토바이에 달고 온 모습이 너무 낯설어서, 이상한 기분을 감추려고 일부러 더 크게 웃었다. 여기서 이렇게 보니 반갑기도 했고.

“배달 몇시부터 댄 거야?”

예지는 마스크를 코 밑으로 내리더니, 오토바이 핸들에 부착된 거치대의 투명 덮개 속 액정화면의 배달어플 스크롤을 몇번 올렸다. 장갑을 끼고서도 화면 조작이 되는 걸로 보아하니 특수재질 장갑인 모양이었다.

“한... 새벽 한시 반? 일단... 그때 나왔어. 야식 피크타임 전투콜을 공략했지.”

“피곤하겠다. 무리해서 온 거 아냐? 이러면 내가 너무 미안한데.....”

“너도 일부러 일찍 나왔을 건데 뭐. 와, 근데 여기 되게 삭막하다. 맨날 여기로 출근하는 거였구만?”

고개를 끄덕였다. 살짝 부은 발목이 의식되어서 두어 차례 발목을 돌렸다. 기나긴 통근, 한 시간 반을 버스로 이동하고서 하차하고 나면, 흔들리지 않는 땅을 밟는 게 도리어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예지는 미간을 찌푸리고 다시 배달어플 화면을 조작하고 있었다.

“잠깐만, 이거 급하게 문자 하나만... 남겨야 돼서. 아... 귀찮구만.”

또각또각 화면을 누르는 타자 소리가 몰아치더니 멈췄다. 팔각, 핸드폰을 켜다. 예지가 왼손 장갑을 벗고서 패딩 앞섶을 더듬다가 손을 내밀었다.

“오면서 담배갑 떨렸나봐. 나 담배 하나만. -아, 맞다, 너 요새 금연하지.”

“아니, 금연 또 실패했어. 내일부터 하려고.”

나는 구겨진 담배갑을 주머니에서 꺼내 열어주었다. 예지는 어깨를 들썩이며 웃더니 담배갑을 통째로 빼앗았다.

“그럼 이거 내가 압수할게. 너는 금연에 성공하거라. 나는 니 담배를 빼앗아 필테니.”

라이터가 화려한 불길을 뿜었다. 예지는 벗은 장갑을 움켜쥔 손의 검지와 중지 사이에 담배를 끼운 채로 연기를 한 모금 들이마셨다. 나는 걱정스레 결눈질을 했다.

“너, 그 장갑 조심해. 타겠다.”

예지는 눈을 꼭 감고 들은채 만체 흡연에만 집중했다.

“근데 너, 그 장갑 되게 멋있다. 장갑 끼고서 핸드폰도 되고. 장갑이랑 헬멧이랑 저거 박스랑 다 거기 업체에서 준 거야?”

예지는 오토바이가 배기가스를 내뿜듯 후- 연기를 뿜더니 켈룩켈룩 기침을 했다.

“거기서 뵈을 리가 있냐. 다 내가 산 거지. 박스랑 헬멧도 내가 오프라인 교육장에서 5만원 주고 대여했어. 오토바이도 이번에 하얀나비 팔아서 산 거야. 밀린 대출금도 좀 갚을 겸.”

“뭐라고? 하얀나비를 팔았다고?”

하얀나비는 7년 전 예지가 5개월간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으로 버티고 버티다가 돈 모아 산 메인 기타였다. 연한 바다거품색 칠이 군데군데 하얗게 바래서 멋스럽게 마모된 커스텀 펜더 레킷이었다. 당시 내 대학 등록금의 딱 두 배였다. 핑거보드에 나비 문양이 나전칠기처럼 새겨진 그 기타를 예지는 ‘하얀나비’라고 불렀다. 무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휩쓸고 다녔다. 기타리스트 인디여신, 한국의 오리안시, 이런 수식어가 따라붙던 예지였는데.

“말해 뵈옵니까.” 예지는 다시 담배를 입에 갖다 댔다가 실눈을 뜨고 가로수를 올려다보면서 한숨처럼 연기를 다시 훑 내쉬었다. “다시 비슷한 애로 사와야지. 상황 좀 나아지면.”

상황 좀 나아지면. 저것은 가정문인가, 조건문인가. 머릿속으로는 기계번역처럼 오늘 수업해야 할 내용들이 펼쳐졌다. 그러게. 뭐라 할 말이 없었다. 내가 말없이 끄덕거리니까 예지가 팔꿈치로 나를 톹 쳤다.

“야, 있잖아. 내 앞가림은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누가 안 챙겨준다, 알어? 그래서 나 이번에 배달기사 노조도 가입했잖아.”

예지가 말을 끝내기도 무섭게, 안마의자 광고가 옆면에 거대하게 부착된 벤이 갑자기 신호에 걸려서 우리 앞에 섰다.

‘품격을 높여드리시는 특품 건강선물!/ 특별하신 당신에 스페셜찬스 사은품!/ 프레스티지 고품격 효도상품!’이라는 알송달송한 카피문구가 쉴새없이 주렁주렁 달린 광고. 반복되는 ‘품’자의 피울 배치가 쇠창살 같다. 광고사진에는 어디서 많이 본 흰머리 시니어 모델이 “자, 어머님, 이제 인자한 미소를 지어보세요.”라는 사진작가의 지시를 따른 듯한 표정으로 안마의자에 앉아 있다. 시니어 모델의 어깨 위에 손을 얹은 딸 역할의 젊은 모델은, 포토샵 탓인지 몰라도, 하관이 잘 안 움직여 괴로운듯 억지미소를 짓고 있다. 구도만 보면 영락없는 17세기 유럽 왕실 초상화다. 안마의자 왕좌에 앉은 여왕과, 유행하는 외모를 확보하는 데에 성공한 묘령의 공주. 모녀 역할을 수행하는 두 여성 모델은 똑같은 금귀걸이와 금목걸이를 착용했다는 것 외에는 서로 닮은 모습이 전혀 없다.

예지는 신호가 바뀔 때까지 그 뺨을 노려보다가, 카악 뿜, 굴러가는 바퀴를 향해 가래침을 뱉고서 담배꽂초를 하수구에 던졌다.

“어디 좀 들어가자. 너무 배고파 죽겠다.”

아직은 이른 시간이라 영업중인 곳이 대형 패스트푸드점 뿐이었다. 쿵쿵거리는 기계음 박자와 교성 섞인 노랫소리가 야단스레 섞여흘렀다. 반짝 떴다가 슬슬 지는 중인 걸그룹 아이돌 노래인 모양이었다. 예지는 마스크를 내리고 자기 얼굴만큼 커다란 햄버거의 포장을 뜯더니 한 입만에 절반 크기를 앙 베어물었다.

“야! 천천히, 꼭꼭 씹어먹어. 체할라.”

“앙애. 어엄우 배오파. 잉아 떠어니은 누 아나떠.”

“야, 다 먹고 말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예지가 질경질경 한참을 씹다가 꿀꺽 삼키고 말했다.

“안돼. 너무 배고파. 진짜 쓰러지는 줄 알았어.”

그러더니 예지는 눈을 ‘까’ 소리가 나는 듯한 이모티콘 >O< 모양으로 꼭 감고서, 햄버거의 남은 절반을 크게 벌린 한입에 꼭꼭 욱여넣었다.

예지가 열심히 햄버거를 씹으며 콜라를 빨대로 흡입하는 동안 나는 시선을 이리저리 돌렸다. 통유리창에는, 온갖 포스터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요즘 핫한 캐릭터 이미지가 그려진 ‘불고기버거 메뉴 포스터!’ 유행어를 변주한 카피문구가 수놓인 ‘트리플 베이컨비프패티 메뉴!’ 눈꽃치즈와 버터로 형체 모를 고기가 버무려진 ‘여심저격 신메뉴!’ 맛있으면 0칼로리라는 비과학적인 문구가 적힌 ‘다이어트 샐트메뉴!’ 다닥다닥 다급한 느낌표처럼 포스터들이 한가득 전시되어 있다.

핸드폰을 꺼서 스케줄을 확인했다. 오늘도 수업이 많다. 벌써부터 까마득하다.

예지가 드디어 햄버거를 다 먹었다.

“너는 안 먹어? 와야, 스케줄 봐. 뽐뽐하네.”

“못 먹어. 내일부터 영상수업 촬영 들어가야 된대서 강제 다이어트 중이야.”

예지는 내 말을 듣고 웃더니, 감자튀김 네다섯개를 한꺼번에 케첩에 찍어 꿀꺽 삼킨 뒤, 콜라를 바닥까지 빨아마셨다. 빨대가 종이컵 바닥을 긁으면서 꼬로록 배끓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

예지가 사팔눈을 뜨고 종이컵 바닥을 집중적으로 찌려보며 빨대를 쪽쪽 빨아먹는 걸 보니, 아까 예지가 지나가던 뺨을 노려보던 것도 갑자기 떠올랐다.

“나 먹은 게 없어서 다행이지, 하마터면 아까 안마의자 광고차 본 것 뺨에 토할 뻔했어. 그 사진 진짜 너무 가식적이지 않아?”

내 말을 들은 예지의 표정이 굳어졌다. 고개를 몇 번 주억거리다가 트림을 하고 갑자기 조용해진 예지가 입을 열었다.

“나, 실은 어제.”

입을 달짝이던 예지의 입꼬리가 얼어붙듯 올라갔다. 해독할 수 없는 표정.

“엄마년이 죽었대. 유품 받으러 오래.”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하나. 표정 관리가 안 된다. 어떡하지. 가만히 테이블을 향해 눈을 떨궜다. 철제 테두리에 붙은 노란 플라스틱 상판이 여기저기 굽혀 있다.

다시 예지를 올려다 보았는데, 예지는 여전히 웃고 있다.

“근데, 그게 너무 안 슬퍼. 슬퍼할 수가 없다는 게 너무 힘들어.”

예지가 탁한 얼음물밖에 남지 않은 종이컵을 이리저리 기울이며 빨대를 다시 쥔다.

“빛이 10억이었던데. 근데 내 명의로도 빛을 댔었어. 상속 포기해도 8억이래. 8억.”

남 얘기 하듯, 예지는 외국어를 발음하듯 그 숫자를 몇 차례 되뇌이더니, 대단한 농담을 들은 것처럼 키득 키득 웃었다.

“나 밤새 배달 뛰어서 10만원 벌었어.”

내가 예지를 처음 만났던 것은 십년 전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형성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 출신 십대 여성들의 자조모임에서였다. 어머니가 휘두른 칼에 찔리거나, 아버지가 화김에 몬 차에 치여서 신체적 장애를 입거나, 가족에게 성폭행을 당한 이들도 있었다.

그 외에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회통념상 쉬쉬당하는 여러 자살하고 일상적인 폭력들 앞에서 풍화되듯 무너진 이들이 많았다. 인신공격, 금품갈취, 신체적 체벌, 감금과 구타, 감정적 학대. 가족이라는 거대한 역할극 안에서, 더이상 납득할 수 없게 된 말과 행동과 태도들에 질려서,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고통의 대물림을 끊어내자는 취지에서 모임을 형성했었다.

열 명 남짓이었던 주요 성원끼리는 공동주거공간을 마련해서 모여 살았다. 그 외 오며가며 들락거리던 이들도 수십명이 넘었다. 우리는 고해성사처럼 늘상 이런 말들을 서로에게 들려주곤 했다. ‘우리는 서로의 가족이다.’ ‘서로의 용기가 되자.’ ‘서로의 가족이 되자.’ 우리는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실험적인 가족임을 자부했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우리들답게, 차츰 자조모임 성원들은 자신이 찢렸던 상처에서 뽑은 화살을 서로에게 돌려쏘기 시작했다. 절연과 치유의 과정은 모두에게 달랐다. 급기야는 비난을 넘여 조리돌림, 거짓피해호소, 자살소동 등등, 당했던 그대로를 서로에게 투영하여 재현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사람들은 모임제안자 선생님이라면 상황을 중재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우리는 그를 ‘모임 제안자’의 준말로 ‘모제’, ‘모제쌤’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모든 고충을 해결하는 역할은 모제에게 집중되었고, 다 괜찮아질 거라고 끄덕끄덕하며 모두의 말을 차등없이 들어주는 모습을 볼 때면 웬지 모제가 정말로 모두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자신이 버젓한 ‘상담심리사’라고 속이고 다녔던 모제는 알고 보니 민간 ‘심리상담’ 자격증만 돈 주고 샀던 돌팔이였다. 하긴, 그도 갈수록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다. 그는 이 사람 저 사람 따로 불러만가며 이간질에 준하는 어설픈 공작을 혼자 벌이다가, 공동거주공간 증축 명목으로 여럿에게 거액을 뜯어낸 뒤, 유사 비슷한 것을 써두고 잠적했다. 나중에 그가 무슨 인권단체에 취직했다가 증권회사로 이직했다고 건너건너 들었다.

모제가 꼬리를 자르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예지와 나는 무슨무슨 혐의의 가해자로 몇 차례씩 내부적으로 함께 지목당했다. 모두 사실이 아니었지만, 탈곡기의 낱알처럼 탈탈 털려가며 감정적 총력전을 벌여 온 이들은 이미 사실과 거짓이 무엇인지 구분조차 어려울 지경으로 다 망가져 있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나 명확한 증거보다는 비뚤어진 해석이나 증언을 뒷받침하는 정황적 주장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 어떤 일이 사실이 아님을 토로하는 과정마저 가해로 규정당했다. 그것은 마치 남의 감정싸움통에서 내 현실감각이 인질로 잡혀버린 느낌이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 가하고 당했던 것이 ‘가스라이팅’이었다는 사실을 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몇 개월이 지나고서야, 심리학 학점은행제 수업 교재를 읽다가 그 단어를 처음 접했다. ‘가스라이팅 피해자.’ 이름 없이 앓던 고통의 진단명을 마침내 듣게 된 환자의 마음이었다. 혼자 수만가지의 아픈 가능성의 가닥을 안고 가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언제까지나 자기의심을 달고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마음껏 속상해 해도 된다는 사실이 너무 후련해서, 필기하던 공책의 잉크가 다 번져서 글씨를 못 알아볼 때까지 묵놓아 올렸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그 당시 우리는 모두 어렸고, 그 아픔에 붙일 단어가 아직은 없었다.

결국 모임 성원 한 명이 자필유서를 자기 회사 정문에 붙인 뒤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그 사건은 앞뒤 맥락이 완벽히 거세된 채 ‘패륜집단 패륜녀 자살사건’이라는 끔찍한 명의로만 인터넷상에 납작하게 박제되었다. 모임도 유야무야 해체되었다. 삼년 전의 일이다.

결국 나와 예지에게 남은 것은 우리 둘뿐이다. 같이 살던 때만큼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나는 부모와 자녀가 으레 품곤 하는 지겹도록 벗어날 길 없는 미로 같은 마음과, 긴 전쟁의 참호에서 함께 폭격을 견디고 옆을 지켜준 전우에게 느껴질법한 고마움과, 존재하지 않는 신에게 제물로 바쳐지듯 화형대에 나란히 오르던 ‘마녀’들이 서로 느꼈을법한 동병의 상련과, 형제자매나 피붙이에게 의례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사회적으로 학습받은 모든 통념만큼, 커다란 연민으로, 변함없이, 예지를 사랑했다.

나는 지금도 예지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그래도 얘기하니까 좀 낫다. 잘 먹었어, 나 갈게.” 예지가 헬멧버클을 턱 밑에 고정하고, 오토바이에 올라타며 배달박스를 향해 막연히 손짓했다. “못 태워줘서 미안.”

“근처라서 괜찮아. 피곤할텐데 조심해서 가야 돼. 들어가서 일단 잠 좀 자고, 응?”

“잔소리쟁이!” 예지는 웃으면서 시동을 부아양 켜고, 저만치 반짝이는 자동차들 사이를 누비며 떠났다.

나는 걸어서 30분 거리의 일터로 향했다.

익숙한 출근길을 걸으면서, 나는 들숨 날숨의 산소가 적혈구를 타고 체내세포에 도달하는 미립자 단위로까지 익숙한 증오를 느꼈다.

나는 강남을 증오한다. 증오하고, 증오한다.

뻗속까지 사무치는 그 증오의 독소를 흡수하지 않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마음껏 그 감정에 마음을 내맡기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상의 담요를 억지로 두르는 것이다.

한때 핑크색이었을지도 모를 두꺼운 담요를 두르고, 회색 털실뭉치처럼 엉킨 머리를 한 채, 멍하고 새까만 얼굴로 강남 거리를 천천히 걷는 노숙인 아주머니를 보았다. 나는 혹시 그녀가 실종된 내 엄마일지도 몰라 얼굴을 몰래 살피며 지나쳤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녀는 내 엄마는 아니었다.

나는 마음 속으로 그녀가 되어 상상의 담요를 두른 채 강남 거리를 걷는다.

상상의 담요를 둘러야 비로소 연민이 뒤따를 수 있고, 그나마의 온기도 간직할 수 있게 된다. 그러고 보면 저 고층건물들은 참으로 불쌍하다. 관리와 유지보수가 그만큼 까다롭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손길과 발길이 떠나면, 가장 먼저 부식되고, 가장 요란하게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질 구조물은, 벽돌이나 흙이나 나무가 아니다. 유리나 플라스틱과 콘크리트다.

지금 내가 지나가는 곳의 머리 위로 해수면이 상승해서, 이 모든 고층건물을 덮을 정도로 물이 가득 차는, -혹은 행당그레 빈 도로 위로 하나 둘씩 금이 가고, 아열대 기후의 식물들이 넝쿨과 뿌리를 뱀처럼 풀어내는,

헛것을 본다. 열대우림에서는 푸스스 새떼가 날아오르고, 와장창창 마지막 남은 유리창들 깨지는 소리가 숲에 울린다. 이렇게 반드시 도래할 머나먼 미래를 멀찍이 상상한다. 먼지가 서서히 불어와서 더께더께 지층이 되기까지. 수천년이 지나, 고대 아시리아 문명이나 트로이라는 도시의 발굴 전 모습이 이 도시와 겹쳐지는 풍광을 떠올리지 않고서는, 이 시대의 종말을 상상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 시대를 사랑할 수가 없다.

나의 일터는 편입학원과 유흥업소들이 밀집한 거리의 교회 옆 상가건물을 단독사용하는 미인가 국제학교다. ‘미인가’는 외국교육기관 인증서를 구매해 학교라는 간판을 걸었지만 국내 교육부의 승인은 받지 못한 학원들을 이쪽 업계에서 부르는 단어다. 말이 학교지, 사실상 학원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거대한 입시 전문 사업체다.

일한지 삼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이곳의 실체가 아리송했다. 강사전용 사무실까지 가려면 ‘최신식 인터내셔널 프로그램/ 고품격 교육센터’라는 현판이 보일 때까지 가파른 언덕길 골목을 오르고, 음식물쓰레기와 버려진 술병과 토사물이 엉켜 고인 후미진 계단을 거쳐, 잘 열리지 않는 녹슨 철문으로 들어가야 했다. 강사전용 통로는 ‘사용자 공간’이 아니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교회 옆으로 난 넓은 차도를 거쳐 직접 차를 운전해 와야 했다. 가짜 대리석을 발라 둔 지하주차장으로 통과해 올 차량을 등록하거나, 월 백만원대의 통학버스비를 추가지불해야만 교정에 진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다. 부모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학교에서는 ‘비용문의’ 항목으로만 안내하도록 된 옵션을 몰래 가동시켰고, 학생에게 운전기사와 전용차량과 호텔레지던스까지 따로 붙여주기도 했다. 주변이 얼마나 험한지, 시설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학부모들도 아이들도 인식할 수 없도록 만들어 둔 구조였다. 품격을 구매했을 개력이 없는 소비자를 걸러내는 거름망이기도 했다. 보고 싶은 것만 봐도 되는 초인적인 특혜를 누리기 위해, 내 월급의 열배가 넘는 학생 한명 한명의 학기당 등록금을 학부모들은 흔쾌히 일시불로 지불하곤 했다. 학부모들은 등하교 관리가 이렇게 꼼꼼하니 우리 애가 옆길로 섰 일일 없겠냐며 좋아했다.

아이돌 그룹 이름이라 해도 어색하지 않을 이 학교의 명칭은 ‘GVOA Scholars’였다. 실제로 이 학교 출신 아이돌 스타도 한 명 있었다. 성형이 필수 관문인 케이팝 시장의 기획사들 입장에서는, 이미 성형을 알아서 마친 ‘잘 사는 집 아이들’이 연습생으로 들어가면 그만큼 회사 부담으로 성형에 투자해야 하는 부담비용이 줄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선호하는 추세였다. ‘잘 사는 집 학부모들’도 예전만큼 자녀가 예체능계의 진로를 택하는 것을 금지시키지는 않는 눈치였다.

내가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지 않고 굳이 걸어돌아와야 하는 버스를 타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근처 지하철 출구마다 내 학생이었던 아이돌 스타의 응원광고가 거대하게 붙어 있는 것이 보기 싫어서였다.

샬롯이라는 학생이었다. 정작 샬롯은 한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본 적이 없다고 내게 말했다. “영원히 사랑할게 별처럼 빛나는 너”라는 문구가 적힌 그 광고는 근처 일반고등학교의 한 팬클럽에서 학생들이 돈을 모아 낸 것이라고 했다.

그 사진이 존재하기까지, 위궤양과 생리불순이 생길 정도의 혹독한 다이어트와, 눈꺼풀을 까뒀집는 쌍꺼풀 수술과, 코를 뜯어 보형물을 넣는 코수술과, 여드름의 흔적이 남은 피부 표면을 화학물질로 녹여내는 박피 시술을 몇 차례 거쳤다는 것을 나는 안다. 거기다가 분홍색으로 머리를 염색하고 나비 모양 반짝이가 붙은 화장까지 해둔 모습이라 사실 동일인물이라고 알아보기도 힘들었다. 도마뱀 눈알색의 컬러렌즈로 눈동자를 덮어 버린데다가 턱도 기성품마냥 깎아놓아서, 사람이라기보다는, 한때 사람이었던 물질을 재료삼아 만든 인형처럼 보였다. 본인이 원했던 일이라면 또 모를까, 나는 그 많은 강요된 수술들을 끔찍이도 싫어하던 샬롯을 기억한다. 노래만 하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노래만 하고 싶은데요, 저는 그냥 음악 하는 걸 좋아할 뿐인데요, 다이어트는 너무 지겨워요, 밥을 좀 제대로 먹어보고 싶어요, 수술 할 때마다 부작용으로 죽을까봐 무서워요, 라고 울먹이면서, 매일같이 부은 눈으로 학생상담실을 찾아와서 울기만 하던 샬롯은, 삼년만에 지하철 응원광고 사진 속 아이돌 스타가 되어 이상한 억지미소를 짓게 된 것이었다.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선 강사전용 사무실에는 절벽 꼭대기마냥 높은 곳에서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작은 창문이 있다. 창문 아래 정수기로 가서 종이컵에 우롱차 티백을 넣었다. 본관 연결 통로의 문이 열리고 미스터 C가 들어왔다.

“헤이, 미셸 티쳐. 군모닝.”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C는 캐나다에서 경영학 박사 과정까지 마치고 작년에 한국으로 온 교포 출신 강사다. 한번은 회식 자리에서, ‘왜 한국에 오셨냐’라는 질문을 받고서, 미국에 정착하는 것보다는 한국 학원에서 자리를 잡는 게 더 미래가 있고 돈도 된다고 정직하게 답한 적이 있다. 원장이 그 말을 듣고서는 “어머님들 앞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말어요.”하고 허허 웃었다. 원장은 지금은 폐교된 신학대학교 출신의 전직 교수다.

미스터 C는 학교의 스케줄 관리와 입시과목 시험대비 수업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었다. 그는 교회를 진지하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고, 한국어/ 영어/ 불어 삼개국어룰 비슷비슷하게 어눌한 말투로 애매하게 조금씩 틀려가며 사용했다. 항상 아침마다 나에게 하루의 일과를 알려주러 강사전용 사무실로 와야 했기 때문에, 교무실 강사들 중에서는 가장 일찍 출근 하는 모양이었다.

강사들 사이에는 아주 분명한 서열이 있다. 교무실은 유학과 정규직 강사들의 세계, 강사전용 사무실은 프리랜서 외부강사나 국내파의 세계다. 나는 외부강사 중에서도 한국어 강사라서, 서열의 밑바닥이다.

“미셸 티쳐, 투데이. 썬데이 티쳐가 오스트레일리아로 다시 갔잖아. 일단 당분간 대신 문법수업 맡아주세요. 그래서 3교시, B-7반. 오케이? 그리고 하버드 준비반 클래스는 이번 학기 취소됐어. 이번 방학에 홍콩이랑 싱가포르에서 학생 많이 귀국해서, 다 벌써 차이나리스는 아니까. 제 2 외국어는 다 차이나리스 클래스 말고 코리안 클래스 수업 넣기로 했어요. 그것도 미셸 티쳐에게 부탁해요. 잉글리시 문학 수업도 있어. 영어로 읽고 그냥 한국어로 설명해요. 어차피 이번 학생들 다 영어도 잘 못해요.”

“수업이 갑자기 또 많이 들어왔네요? 저 학생상담업무는 그대로인가요?”

“원래, 미셸 티쳐, 오늘 하루종일 풀데이 학생상담인데, 새로 클래스 증원이 되어서 갑자기 7교시까지 영문법, 한국어, 영문학 클래스가 풀로 잡혔네요. 원래 풀데이 학생상담을, 오늘 다섯시 이후부터 애프터클래스 카운슬링 세션 하는 걸로 다 바꿔놓을게요. OK? 땡스.”

미스터 C는 급조된 일정표를 출력해 온 것을 클립보드에서 떼어 나에게 건네주더니 다시 본관 통로로 사라졌다. 처음에는 이렇게 변동사항이 매일 아침마다 생기는 게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나는 원래 이 학원 - 아니, 이 학교에, 한국어교원으로 취업했었다. 그런데 교포 출신 강사들보다 내가 영문법 설명을 잘한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줄지에 한국어 수업 외에도 영문학과 영문법 수업까지 맡게 되었다가, 학생들의 심리상담까지 맡게 되었다가, 급기야는 다른 강사들의 갑작스러운 병가나 퇴직까지 때우는 역할마저 전부 떠안게 되었다.

솔직히 이래도 되나, 싶었다. 정작 여기서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내가 월급은 제일 적게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억울할 법도 한데, 이상하게 그게 도리어 위안이 되었다. 유학과 강사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월급 액수가 뱅킹 어플에 찍힐 때마다, 마치 내가 사기꾼들의 소굴에서 그나마 사기를 덜 치고 있는 사람이라는 징표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변경된 스케줄은 3교시의 절반도 채 안 지나 어그러졌다. 미스터 C가 수업 도중에 문을 벌컥 열더니 굳은 소리로 말했다.

“리사가 급히 상담이 필요해요. 미셸 선생님 아니면 말을 안하겠대요. 병원으로 데려가면 어머님이 화내실 거고요. 상담하다가 응급처치가 필요하면 너스 티쳐에게 말씀하세요. 어머님 오실 때까지만 시간 끌어 주세요.”

자기 딸이 얼마나 똑똑한데, 자기가 한 학기에 여기에 몇천만원을 내는데, 어떻게 자기 딸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냐며, 자기네가 어디 가서 그렇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인줄 아냐며, 학원으로 찾아와서 입에 거품을 물고 육두문자를 내지르며 의자를 던지던 리사 어머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미스터 C는 본인이 남은 수업을 맡을테니 어서 리사 학생의 상담을 해주러 상담실로 가라고 했다. 나는 수업진도표를 미스터 C에게 토스해주고 학생상담실로 향했다.

상담실은 취조실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법한 작은 방이었다. 창문 없이 방음된 공간 안에는 시들시들한 화초와 적당히 귀여운 인형들이 회의용 책상 위에 대충 널브러져 있었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인 리사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손목의 자상을 벌렸다가 누르기를 반복하며 앉아있었다. 우툴두툴한 자해상흔 수천 개가 새하얀 빗줄기처럼 손과 팔뚝과 종아리와 허벅지까지 수놓고 있었다. 리사는 자신이 얼마나 아픈지 제발 알아봐달라는 듯 자상을 드러내는 배꼽티에 핫팬츠를 입고, 아직 아물지 않은 손목의 피를 일부러 눌러서 더 새어나오게 하고 있었다. 리사의 하얀 배꼽티도 피범벅이었다. 간호실에서 왼쪽 손목에 묶어준 듯한 거즈는 벌써 피로 흥건해서 떨어지려 하고 있었다. 리사의 자해상흔은 모두 가로로 그어져 있었다.

내가 문에서 가장 가까운 의자를 빼서 앉자마자 리사는 나를 찢어죽일듯한 눈빛으로 찌려보며 울먹였다.

“왜 이제 왔어요?” 리사가 지겹다는 듯 내뱉었다.

“수업 중이었어요. 리사 학생이 많이 아프다고 해서 미스터 C가 부르셔서 왔지요.”

“선생님. 제가 죽는데요, 제 목숨보다 그깟 수업이 더 중요해요?” 리사가 나를 계속 찌려보며 자기 상처를 후벼팠다. 피가 너무 많이 나오는 상처를 보기만 해도 속이 울렁거렸지만, 억지로 상냥하게 걱정하는 표정을 지으며 답했다.

“그래, 리사가 죽을만큼 힘들구나. 무슨 일인지 얘기해볼래요?”

“선생님 미스터 C랑 사귀세요? 선생님 미스터 C 좋아해요?”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제가 미스터 C한테 고백했는데, 미스터 C가 저를 찾아요. 미스터 C가 저랑 안 사귀어 준대요. 그러고서 미스터 C가 저를 칼로 찔러서 가해했어요. 여기 상처 봐요. 이거 다 미스터 C가 저를 칼로 찌른 거예요.”

“리사, 리사가 우리 학교에 온지는 2주도 안 되었는데, 간호실에서는 그보다 오래된 상처도 많다고 이미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원래 어른은 미성년자랑 사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착취고, 범죄예요. 리사가 차인 게 아니에요.”

“제 말을 못 믿으시는군요. 미셀 티쳐도 미스터 C 편이야. 다 미스터 C 편이야. 학교에서 자기 편 감싸기를 하고 있어요.”

“리사, 약은 잘 먹고 있어요? 치료 잘 받아야 하는 거 알죠?”

리사가 치료라는 단어를 듣더니 책상을 손으로 짚었다. 상처가 터져서 피가 튀기는 질퍽한 소리와 피비린내가 퍼졌다.

“지금 저보고 정신병자라고 몰아가는 거예요? 정신질환자 혐오하는 거예요?”

“리사, 상처 그만 뜯으면 좋겠는데.....”

그러자 리사는 보란 듯이 아예 거즈의 매듭을 풀고서 그 밑의 상처에 피떡진 것을 더욱 본격적으로 뜯기 시작했다. 그때 내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

“리사, 어머니가 오고 계시니까.....”

리사는 어머니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자기 발로 의자다리를 차서 바닥에 넘어지더니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엄마 싫어! 어, 엄마 싫어!”

예지를 만났던 자조모임 성원들과 공동주거공간에서 지내던 시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젠더디스포리아의 합병증으로 자주 경련을 일으키던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민주였다. 민주는 나의 첫 룸메이트였다. 누군가가 경련을 일으키는 모습을 나는 그때 처음 보았다.

모제는 민주가 겪는 젠더디스포리아가 친오빠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던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단정지었다. 모제는 ‘트랜스젠더’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민주를 ‘트랜스젠더’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전부 민주와 성

폭력 사실을 지워버리는 ‘2차 가해자’들이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며 우리를 몇날 며칠씩 붙들고 설교를 해댔다. 우리는 어렸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고, 모제는 이제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계속 우리를 설득하려 들었다.

그렇지만 민주는 신체만 여자였다. 민주는 분명히 남자아이였다.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원하지 않는 몸에 갇히면 이런 경련을 하게 되는 것일까? 라고, 나는 민주를 보며 자주 생각하곤 했다. 민주는 몸이 감옥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다. 자기도 예지처럼 꼭 뮤지션이 되고 싶다며 해맑게 웃던 민주였다. 자필유서를 쓰고 뛰어내린 그 친구가 민주였다.

나는 민주를 떠올리기만 해도 온 몸이 발작을 일으킬 것만 같고, 내 의지와는 외파로 움직이게 될 듯 아파와서 가만히 일어볼곤 한다.

일어붙어서 자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내가 우스웠던지, 바닥에서 경련을 일으키던 리사 학생이 갑자기 키득키득 웃으면서 눈물범벅이 된 자기 얼굴에 자기 피를 묻혔다.

“미셀 티쳐. 학생이 자살시도하다가 경련을 일으키는데 도와줄 생각도 안 해요? 우리 엄마 돈 많거든요? 고소 한번 당해볼래요? 해고 한번 당해볼래요?”

그러더니 리사 학생은 계속 책상 밑 바닥에 누운 채, 널부러진 자기 가방에서 필통을 꺼내고, 필통에서 커터칼을 꺼내들고, 자기 손목을 가로로 여러 차례 썰었다. 초고추장 종지를 칼로 쟈 것처럼 빨간 피가 쏟아졌다. 리사 학생은 자기 피를 보고 잠시 이상한 쾌감에 젖더니 다시 나를 보며 다시 키득키득 웃었다.

“미셀 티쳐가 나를 칼로 찌른 거예요, 방금.”

피비린내가 훅 끼쳐오니까 정신이 들었다. 회의용 책상 밑으로 몸을 날려서 리사 학생의 손에서 커터칼을 잡아챘다. 리사가 고개를 빼들고 천장 구석 CCTV의 위치를 확인하더니 입꼬리를 찡찡했다.

“그럼 좋네요, 미셀 티쳐.”

소름이 끼칠 새도 없었다. 상담하다가 응급처치가 필요하면 너스 티쳐에게 연락하라고 했지. 커터칼 칼날을 다시 밀어넣고서, 피 묻은 손으로 핸드폰을 잡으며 엉거주춤 일어났다. 리사 학생은 바닥에 파리를 틀고 누워 제풀에 다시 영영 울다가 히죽히죽 웃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간호사 선생님’으로 저장된 번호를 검색하려고 핸드폰 액정화면을 켜다. 부재중 전화가 열 통이 와 있었다.

예지였다.

간호사 선생님께 리사 학생을 인계하고 곧바로 예지에게 전화했다. 신호음이 한참 울리다가 음성사서함으로 갔다. 예지가 이렇게 전화를 몰아서 할 리가 없다. 통제과장이던 나의 엄마가 내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몇시간씩 몇백통씩 전화를 시도해도 없이 하던 것을 아는 예지였다. 나에게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걸 아는 예지가 이렇게 전화를 몰아서 할 리는 없다.

벽에 기대어 심호흡을 하고 있는데, 예지에게 전화가 왔다.

“안녕하세요, R병원 응급실인데요. 미아 씨 본인 되시나요?”

낮선 남자 목소리였다. 배경에는 소란스러운 기계음과 의료코드 안내방송들이 뒤섞여 들렸다.

“예지 번호 아닌가요?” 나는 숨을 겨우 몰아쉬며 되물었다.

“아, 예지 씨 ‘가족’으로 미아 씨 번호가 저장되어 있어서요. 예지 씨 지문인식으로 핸드폰 잠금해제된 뒤에 연락드렸어요. 바로 병원에 와보셔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예지 씨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무슨 일이에요? 지금 어디시라고요? 예지가 어디예요?”

놀라서 말을 더듬으며 물어보는데, 미스터 C가 굳은 표정으로 상담실을 향해 걷다가, 나를 보고 눈을 둥글게 뜨며 외친다.

“미셀 티쳐! 리사 학생에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나는 일단 뛰어야겠다. 지금 예지가 아프다. 예지에게 가야 한다.

“거... 거기 서요! 미셀 티쳐! 헤이! 경찰 부를 거예요!”

복도 모퉁이를 빠르게 돌며 생각했다.

우선, 이 건물을 벗어나야 한다. 어차피 리사 학생의 말대로 리사의 집은 돈이 많다. 리사 어머니의 말씀대로, 리사 학생은 머리가 정말 좋다. CCTV의 각도상 내가 빠져나올 구멍이 없다. 나는 이미 해고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리사 학생의 어머니라면 경찰을 부르기도 남을 사람이다. 나는 해고당했을뿐 아니라 당장 수배자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지금 예지가 병원에 있다. 나는 예지에게 가야 한다. 달려가며, 숨을 헐떡이며, 나는 수화기를 다시 귀에 댔다.

“여보세요?”

“네, 예지 씨가 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요. 지금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좀 큰 사고여서요. 일단 지금 오실 수 있는 거죠?”

“이 건물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네?”

“지금 가요.”

녹슨 철문을 열고 건물을 벗어났다. 음식물쓰레기와 버려진 술병과 토사물이 엉켜 고인 후미진 계단을 거쳐, 가파른 언덕길로 뛰다가 넘어져서, 계곡으로 구르듯 미끄러져 내려갔다. 무릎이 다 까져서 피가 났고, 머리가 산발이 되어 있었다. 예지에게 가야지. 몸을 일으키려고 아스팔트에 손을 짚었다. 예지에게 가야지. 바람결에 날아온 버려진 영수증이 하얀 나비처럼 나부끼고 있었다.